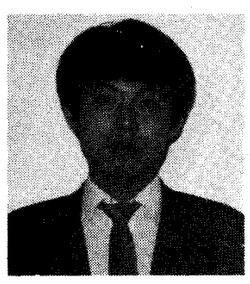
평화 이용 더 이상 될 수 없다!

◇평화의 개념과 평화운동의 의의



김 창 수
〈평화연구소연구원〉

평화란 상부구조의 계급지배 유지에 악용되어온 기존 평화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구조모순이 없는 평등의 상태와 대립과 종속이 없는 화해와 독립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에 기획부에서는 평화의 올바른 개념정립과 이의 실현을 위해 벌이고 있는 평화운동의 현황과 전망을 밝히고 세계의 신데탕트 분위기를 분석하는데 바른 관점을 갖고자 7회에 걸쳐 평화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 註〉

글싣는 순서

1. 평화의 개념과 평화운동의 의의
2. '사회주의 평화관'의 발전과정
3. 서유럽의 평화운동 성과에 대한 비판적 고찰
4. 평화운동의 시각에서 바라본 동구권 변혁
5. 민족모순의 해결고리로서 정립되는 평화운동 (아·태지역 중심으로)
6. 한반도내 평화운동의 현황과 전망
7. 기획르뽀

I. 들어가는 말

인류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삶의 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다. 넓은 의미에서 평화를 '삶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인류의 오랜 노력은 곧 평화를 위한 노력이다. 하지만 평화를 향한 인간의 노력은 사회적 위치와 처지에 의하여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평화의 길을 가로막는 모습도 돌출되었다.

오늘날 한반도에서는 한반도가 처한 사회·역사적인 조건 때문에 평화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몇년전까지만해도 평화는 물질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이나 관심가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했으나 이제는 진정한 평화란 양심적인 모든 사람들과 피지배계급에 의하여 이룩된다는 인식이 명확해진 것이다.

지배계급에 의하여 유포된 허구적인 평화논리에 맞서 진정한 평화의 개념정리가 이루어 질 때 사이비 평화론을 불식시키고 모든 인간의 전인적 가능성과 행복이 보장될 수 있다.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와 질서가 유지되는 것을 바탕으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가장 평화로운 상태라고 여길 것이다. 인간의 노동과 그 노동이 사회관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사장하고 초가집 굴뚝에서 피어나는 연기만을 보면서 평화스럽다고 하는 사이비 낭만주의도 평화를 왜곡하는 표본이다.

평화는 결코 '공동묘지의 고요'를 뜻하지 않는다. 평화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다. 왜냐하면 평화는 인간의 생명을 살리고 끊임없이 더 나은 삶의 조건을 개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동묘지의 고요'는 생명의 죽음만을 뜻하는 것이다.

이글에서는 평화문제가 우리의 주요한 관심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평화운동의 올바른 방향을 세우기 위해 평화의 개념과 평화운동의 의의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II. 평화의 개념

1. 평화의 개념에 대한 다각적 분석

평화운동은 무엇을 실현하는 것이고 어떠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인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추상적이고 막연해져서 현실의 운동이 되지 못한다. 평화라는 단어가 어떤 특정의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설명하는 말이므로 사실적인 개념규정이 있어야만 현실에서 운동의 지표가 되는 것이다.

평화라는 말속에는 사랑, 행복, 안녕 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는 곧 평화가 그 자체의 질적인 규정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평화에 대한 완전한 의미규정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평화연구가인 피히트(Georg Picht)가 주장한 '평화란 모든 유토피아를 다 포함하는 유일한 유토피아이다'라는 말은 평화의 사실적 규정이 얼마만큼 어려운가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평화를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한다. 전쟁이 없는 상태, 전쟁과 전쟁의 중간상태, 힘의 균형을 이룬 상태를 소극적 평화라고 한다. 2차 바티칸공의회(1965)의 '현대세계의 사목헌장'은 평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언급하고 있다. 사목헌장은 '평화는 전쟁이없는 상태만은 아니요, 적대세력간의 균형유지만도 아니며, 전체적 지배의 결과도 아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평화는 정의의 실현인 것이다. 더욱 완전한 정의를 갈망하는 인간들이 실현해야 할 그 질서의 현실화가 바로 평화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평화는 폭력·억압·공포·위협에 의해서 강요된 질서, 강자가 약자를, 물질적인 부를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질서가 아니다. 사목헌장의 규정이 적극적인 평화의 개념이다.

폭력의 구조와 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하여 구조적 폭력의 이론을 수립한 갈퉁(Johan Galtung)은 '평화란 폭력의 부재'라고 정의하였다. 이때 폭력의 개념을 육체적·물리적 폭력이라고 한다면 갈퉁의 평화의 개념은 소극적 개념이다. 그러나 폭력은 물리적·육체적 강제력만이 아닌 구조적 폭력을 포함한다. 인간에 대한 억압과 착취의 원인이 구조적 폭력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나 기아, 독점자본의 이윤추구에 의한 환경파괴 등이 넓은 의미에서 평화문제에 포함된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평화는 억압과 착취가 없고 인권과 정의가 보장된 사회에서만 존재한다.

이제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평화의 개념을 살펴보기로 하자.

공자는 제자인 자공이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묻자 "식량을 풍족하게 하여 기아로부터 해방하고, 전쟁방지를 위해서 무기를 풍족하게 하며 인민으로부터 신임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자공이 다시 "이 세가지 가운데 부득이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하느냐"고 묻자 공자는 "무기를 버려야 한다"고 하였다.

공자가 전쟁방지를 위해서 무기를 풍족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 점에서 '핵무기에 의한 전쟁 억지'라는 논리를 연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자는 최소한의 자기 보호능력으로서 무기를 이야기했다. 또한 공자시대에는 지금의 전인류를 붕괴시킬 정도의 가공할만한 파괴력을 지닌 위협적인 무기가 존재하지 아니했다는 점에서 그의 말을 요즘의 핵억지력과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도리어 무기를 버려야 한다는 말에서 평화에 대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의 순환원리, 자연계의 순리를 뜻하는 '다르마(Dharma)'라는 어휘의 의미를 살펴보면 불교의 평화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 즉 다르마를 인간과 자연과의 원리라고 해석한다면, '존재상호간의 정당한 관계수립'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기본은 평화인 것이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서로를 죽이고 학대하는 관계가 아닌 자기정화와 사회질서의 수립이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역시 평등한 관계로서 인간은 자연과의 관련속에서 생존할 수 있으며 자연의 일부이다. 다르마의 원리는 인간과 사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이룩되는 평화라고 할 수 있다.

성서는 신약에서만 평화라는 말이 91번 사용되어지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서구 평화사상의 초석이 되고 있다. 신약에서 평화의 개념은 구약의 샬롬(Shalom)과 뿌리를 같이하고 있다.

신약에서의 평화는 개인의 안정과 안녕이란 개인들의 무사하고 손상되지 않은 상태와 두려움에서 해방된 마음을 의미하며 가정간, 국가간의 일치와 화목이란 사람들 사이의 전쟁, 분열, 불신, 차별, 갈등과 같은 현상과 반대되는 화목과 협력이 넘쳐흐르는 상태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성서는 하느님과 개인과의 일치나 종말론적 구원만을 관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평화 즉 집단과 국가간의 평화에 관심을 두고 있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 녹아있는 말속에서 우리 민족의 정서에 내재되어 있는 평화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멋과 한과 삶의 뜻을 포착해보자.

멋에는 '예술적 미'라는 뜻과 함께 흥겨움, 신남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멋은 생동적이고 율동적인 용어이다. 멋에는 또한 서로 호흡이 맞는다는 뜻에서 조화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주어진 환경에 조화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멋적어 한다.

한은 하나를 나타내기도 하고 전체를 나타내기도 한다. 한에는 '크다'라는 뜻이 있다. 우주는 한울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기의 마음속에 우주 곧 한울을 모시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한에는 조화와 평등의 뜻이 있다.

삶은 사람의 준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고도 할 수 있다. 즉 누구나 사람다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뜻한다. '멋, 한, 삶'이라는 말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조화와 평등과 존중의 의미속에서 우리민족의 정서와 생활감정이 생동감 넘치고 활기 있는 평화의 개념과 접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평화란?

평화라는 글자의 뜻을 풀이해 보자. '평(平)'은 평등, 평균, 평이, 평안의 뜻이 있다. 이는 '고른', '골고루'라는 뜻이다. '화(和)'는 화협, 조화, 협조, 중도 등의 뜻으로 '어울림'을 말한다. 평과 화를 합한 평화는 전체간의 교류가 아무런 장애가 없이 통용되고 모든 관계가 조화를 이룬다는 생동적이고 진취적인 기능을 말한다. 곧 골고루 어울린다는 뜻이다. '어울린다'라는 말에는 '골고루'라는 뜻이 포함돼 있다. '골고루'가 포함되지 않는 '어울림'은 '어울림'이아니기 때문이다. 평화라는 글자는 '어울림'으로 풀이될 수 있다.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고 나라와 나라가 어울린다는 뜻이다. 어울리지 않을 때는 어울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제국주의와 식민지국가와의 관계는 분명 어울리는 관계가 아니다. 어울림을 파괴한 것은 초과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제국주의 자본의 논리이다. 따라서 식민지 민중은 제국주의와의 어울림의 파괴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족해방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각도에서 평화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제 결론적으로 평화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해 보기로 하자.

첫째, 평화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국가와 국가간에 평등주의가 관철되는 조화로운 상태이다. 이는 평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조화를 말한다.

둘째, 평화는 앞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정의가 보장되는 상태를 포함한다. 이는 평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조화를 말한다.

셋째, 평화는 공동묘지의 고요가 아닌 진취적이고 활기있는 상태이다. 인간의 육체적 사회적 생명의 발현은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평화는 활기있는 상태를 뜻하는 개념이다.

넷째, 평화는 삶의 조건의 개선이라는 점에서 변증법적 '지향'의 의미를 가진다.

다섯째, 평화는 모든 구속으로부터 인간이 지극히 자유로와지는 상태, 곧 해방을 뜻한다. 그러므로 평화는 전쟁반대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반대, 모든 민중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이룩, 불평등한 경제질서 타파, 인권신장, 정의실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III. 평화운동의 의의

1. 민족생존의 위기

우리민족은 훌륭한 공동체의식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마을 공동체가 재난을 당했을 때 마을의 구성원인 개개인의 노동력을 추렴하여 공동의 힘으로 재난에서 벗어났던 품앗이가 대표적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우리민족의 생활양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근대 산업화과정에서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창조적으로 계승되지 못하고 인간의 분열과 소외와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수돗물 오염의 문제가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었던 89년의 경우, 공동의 노력으로써 재난을 극복하였던 전통은 사라지고 개인적으로 정수기나 생수의 구입을 통하여 수돗물 오염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돌이켜 보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수돗물만이 아니다. 심각한 자연의 훼손, 대기오염, 이윤추구에만 급급한 독점자본이 국민의 생명을 도외시하고 생산해내는 불량식품과 합성세제, 핵발전소 등 이루 말할 수가 없다.

80년부터 87년까지 산업재해와 농약중독으로 죽어간 노동자와 농민의 수가 한국전쟁기간 동안의 사망자 수에 버금간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소리없는 전쟁을 치루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한반도에 배치된 핵무기는 남북한을 두번이나 쑥밭을 만들고도 남는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핵무기가 가장 밀집된 지역이다.

핵의 출현은 우리에게 죽음의 의미에 대한 질적 전환을 안겨주었다. 핵이 출현하기 이전의 죽음이란 인간 개체의죽음, 또는 개체의 합으로써 인간 다수의 죽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핵시대의 죽음은 인류의 전멸을 의미한다. 미·소가 보유한 핵은 지구를 8번을 파괴하고도 남기 때문이다. 기계조작의 실수나 판단착오, 국지적 분쟁의 발생 등은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핵전쟁 이후의 대책은 없다. 오직 예방 뿐이다.

핵무기 제조계획인 맨하탄 계획을 건의 했던 아인쉬타인은 핵무기의 위협성을 절감하고 반핵운동의 대열에 열렬히 나섰다. 아인쉬타인은 만일 4차대전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투석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3차대전으로 인류의 문명이 파괴된 후 치뤄지는 전쟁은 투석전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시 한반도의 상황으로 돌아와 보자. 85년 제125회 국회본회의 질의내용에 따르면 남한 땅에는 1945년 일본에 투하되었던 원자폭탄인 12.5t의 리틀보이(Little boy)보다 파괴력이 1750배나 되는 핵탄두들이 배치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83년 와인버거가 미국방성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중동산유지역에 소련이 개입할 경우 북한에 대한 선제핵공격을 강행한다고 한다.

민족의 생명이 핵폭풍 위기에 놓여 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운동은 바로 이러한 핵전쟁을 반대하는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2. 평화운동의 의의

한반도에서의 평화운동은 전쟁, 핵, 환경오염 등 우리 민족의 생명을 송두리 채 앗아가는 반평화적 요소에 대한 반대에서 비롯된다. 군사·환경의 위기에 대한 반대에서 출발하여 통일된 조국에서 남과 북의 민중이 외세의 간섭없이 더불어 함께 사는 날을 지향한다.

평화운동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운동은 백척간두에 처해있는 민족의 운명을 전쟁·군사구조에서 구출하여 민족의 생명을 보호하고 번영을 약속한다. 군사적 위기구조에서 비롯되는 핵전쟁은 민족의 생존을 가장 위협하고 있다. 핵전쟁은 우리 민족 모두의 문제이다.

둘째, 평화운동은 미국의 군사적 지배에 반대하는 자주화운동과 민족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조국통일운동을 긴밀하게 결합시킨다.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통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반핵 평화운동은 자주화 운동과 통일운동을 결합시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원동력이다.

셋째, 평화운동은 민족민주운동의 전망을 밝히고 지평을 넓혀준다. 평화운동은 민족의 위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 지구촌 공동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현실에 발맞추어 민족민주운동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 몫을 담당하며, 운동의 대중적 지평을 넓힌다.

넷째, 평화운동은 세계평화애호민들과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한다. 평화문제가 우리민족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구촌 공동의 문제이므로 평화운동은 전세계적인 동력을 가지고 있다. 반전반핵 평화운동의 기치 아래 세계평화애호민들과의 폭넓은 연대는 남한운동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IV. 맺음말

지배계급은 스스로의 이익이 보장되는 질서를 유지하고자 평화라는 말로 치장해왔다. 그러나 지배·피지배의 불평등한 구조가 결코 평화로운 상태가 아님은 이미 여러차례 강조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평화운동이 불평등한 구조를 온존시키는 지배계급에 대항하여 자유와 평등을 확보하려는 피억압계급이나 피억압민족의 무장해제를 초래한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지배체제가 전용해왔던 평화를 피억압민족과 계급이 되찾는 것 만큼 큰 힘은 없다. 보다 직접적으로 평화운동은 피억압 계급과 민족의 해방운동의 내용과 목표인 것이다. 평화는 피억압자에 의한 만인의 평화이므로 역설적으로 억압자에게 사이비 평화에 대한 독점이 아닌 진정한 평화를 안겨준다.

평화를 수단과 목적으로 구분하여 수단이 평화적이어야 진정한 평화다'라는 주장은 평화의 상대성을 무시하여 불평등 구조를 연장시키는 방법이나 불평등구조의 범위내에 평화운동을 묶어두려는 속셈이다. 수단이 목적의 가치를 관철시키는 한도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다른 한편의 반박도 있지만 평화는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과정에서 평가될 수 있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민족자존을 위한 투쟁은 폭넓은 의미에서 평화의 가치를 잃지 않는 투쟁이다. 한반도에서 이제 자라나기 시작한 평화운동은 세계적인 흐름과 발맞춰 이땅을 평화의 기운으로 가득차게 할 것이다.

◇사회의 안정, 질서라는 명목아래 계급, 민족모순들을 극복하려는 노력들은 묵살되고 있다

정치·경제·사회구조의 불평등 해소가 최종목표

反민중적 지배 타파할 변혁의 논리 도출해야

사람을 소중히, 꿈을 소중히
꿈을 실현하는 젊은이들

"왜 별을 보느냐구요?"

검은 밤하늘의 아득한 나락속에서
희망처럼 반짝이는 별무리들——
백세 인간이 200억살의 우주를 동경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인지도 모른다.
"왜 별을 보느냐구요?
호기심 때문이죠. 우주보다 더 큰 수수께끼는 없거든요."
우주에 대한 그리움이 그리움만으론 모자라
천문우주 아카데미 강사가 된 김병일씨(29세).
자리를 잡아가던 컴퓨터사업도 그만두고
이길로 나선 것은 그가 지나친 이상론자여서일까?
"전 천문학자도 아니고 별이 좋아 이일을 하는 것 뿐이예요.
한가지 꿈이 있다면 천문학을 통하여 나도 있고
이웃도 있고 또 우주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과학의 대중화운동이라고나 할까요?"
그는 이 운동의 일환으로 과학캠프, 서적출판,
과학교재보급 등을 준비중에 있는데 일손이 모자라
날 밤을 새우기 일쑤다.
"자신의 신념만 확고하면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이 정말 무엇을 하고싶은지 찾기에 달렸지요."
과학대중화를 위해 노력하는 그에게
어린이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어린이들은 순수해서 옳은 것은 곧 받아들이거든요.
다만 동심이 세파에 시달려 혼탁해져가는 것이 안타깝지요.
어린이에게 건강한 꿈을 심어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꿈을 향해 의지를 불태우는 젊은 이야기를 찾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적어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이야기는
대학지광고로 소개하고 소정의 고료를 드리겠습니다.
■ 보내실곳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우체국 사서함 47호
「人材第一」편집위원회/TEL. 730-9711

인재와 첨단기술의
三星